

보도시점 2023. 9. 10.(일) 12:00 (월요일 조간) 배포 2023. 9. 8.(금)

아시아 19개국 대상으로 파리협정 투명성체계 역량 키운다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아시아 19개국 공무원 40명 대상으로 파리협정 투명성체계 역량배양 연찬회 개최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정은해)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중구에 소재한 라마다 서울 동대문호텔에서 아시아 19개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파리협정 투명성체계 역량배양 연찬회(워크숍)를 연다.

이번 행사는 △파리협정 투명성체계 파트너십(PATPA*), △유엔식량농업 기구(FAO), △투명성 역량배양 이니셔티브-글로벌 지원 프로그램(CBIT-GSP)**과 공동으로 마련됐다.

* (Partnership on Transparency in the Paris Agreement): 독일·한국·남아공 정부가 공동 설립('10.5월, 제1차 피터스버그 기후각료대화)한 국제 파트너십으로, 투명성 체계 이행 촉진 및 관련 기후협상의 선진국-개발도상국 간 의견 공유를 목적으로 함

** (The Capacity-building Initiative for Transparency-Global Support Programme): 개발도상국의 투명성체계(국가 보고 및 검토) 이행 관련 역량배양 지원을 위해, 지구 환경기금(GEF)이 자금을 지원하고, 유엔환경계획(UNEP) 코펜하겐 기후센터(UNEP-CCC)에서 실행하는 국제적인 사업

지난 2015년 11월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통해 파리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모든 당사국은 내년부터 2년마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감축목표 이행·달성 현황 등의 정보를 담은 보고서(격년투명성보고서)를 유엔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다수 개발도상국은 이러한 정보를 국제 사회에 보고한 경험이 부족해 사전적인 준비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독일 정부와 함께 아시아 지역 담당자들의 보고 역량배양을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이번 행사에는 베트남, 일본, 중국 등 아시아 19개국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점검 담당자 40명이 참가한다.

이들은 △파리협정 아래 강화된 투명성체계에 따른 보고·검토 체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이행 현황 정보를 보고하는 방법, △격년 투명성보고서의 보고 준비를 위한 공통 과제 및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이번 행사 기간에 제공될 모든 식사를 채식 식단으로 구성해 저탄소 생활을 몸소 실천할 계획이며, 참가자들에게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정은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격년투명성보고서 제출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국제사회에 보고 경험의 부족한 개발도상국의 역량배양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여러 국제기구와 함께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투명성체계 이행 및 기후변화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 배양 과정을 제공하여 전지구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참가국 명단.
2. 행사 개요.
3. 전문용어 설명. 끝.

담당 부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기획총괄팀	책임자	과 장	김희창 (043-713-7502)
		담당자	연구사	신동혁 (043-714-7511)

붙임 1

참가국 명단

구분	국가	인원(명)
1	네팔	1
2	대한민국	3
3	라오스	3
4	말레이시아	2
5	몰디브	2
6	몽골	4
7	베트남	2
8	부탄	2
9	브루나이	1
10	스리랑카	1
11	캄보디아	3
12	태국	4
13	인도	2
14	인도네시아	2
15	일본	1
16	중국	2
17	파키스탄	3
18	필리핀	1
19	호주	1
계		19개국 40명

□ Regional Workshop for the Asian Network

○ (주제) 「NDC 진전사항 추적」

※ (영문명) Tracking Progress of the Mitigation Commitments of NDCs

○ (일시·장소) '23.9.11.(월)~13.(수), 라마다 서울 동대문(서울 중구 동호로 354)

○ (참여기관) 센터(GIR), PATPA, 유엔식량농업기구(FAO), CBIT-GSP*

* The Capacity-building Initiative for Transparency - Global Support Programme

○ (대상) 아시아 19개국* 담당자, 강사, 관계자 등 약 50명

* 네팔, 대한민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베트남, 부탄, 브루나이, 스리랑카,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호주

○ (목적) 국가별 NDC 목표 이행점검 담당자의 격년투명성보고서(BTR) 보고 절차와 관련된 목표, 원칙, 기술적 이해 등 제고

- 파리협정 下 강화된 투명성체계에 따른 보고·검토 체계 내용 공유
- 공통보고양식(Common Tabular Format, CTF) 활용 방법
- NDC 진전추적 정보 보고 관련 국제기구 개발 툴(tool) 실습 및 활용
- 국가별 NDC 이행점검 관련 공통 과제 및 협력 방안 파악 등

- **격년투명성보고서(Biennial Transparency Report, BTR)**
 - 모든 파리협정 당사국은 2024년부터 2년마다 BTR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파리협정에 따른 자발적 감축목표 이행·달성현황, 적응, 재원·기술·역량배양 관련 사항에 대한 정보를 UN에 보고해야만 함
- **강화된 투명성체계(Enhanced Transparency Framework, ETF)**
 - 기존 투명성체계(국가 보고 및 검토) 대비 강화된 형태로, 파리협정 제13조 투명성체계를 의미하며, 제13조 제7a항 및 제7b항에 따라, 앞으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해당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함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
 - 파리협정 이행을 위하여 각국이 감축목표, 적응정책 등을 스스로 결정 및 수립하여 5년마다 유엔에 제출하도록 하는 기여방안
- **파리협정 투명성체계 파트너십(Partnership on Transparency in the Paris Agreement, PATPA)**
 - 독일·한국·남아공 정부가 공동 설립('10.5월, 제1차 피터스버그 기후 각료대화)한 국제 파트너십으로, 투명성체계 이행 촉진 및 관련 기후협상의 선진-개도국 간 의견 공유를 목적으로 함
- **투명성 역량배양 이니셔티브-국제 지원 사업(The Capacity-building Initiative for Transparency-Global Support Programme, CBIT-GSP)**
 - 지구환경기금(GEF)이 자금을 지원하고, 유엔환경계획(UNEP) 코펜하겐 기후센터(UNEP-CCC)에서 실행하는 글로벌 프로젝트로, 개발도상국의 투명성체계 이행을 위한 기술적·재정적·역량배양 지원이 목적임